



‘바로사의 쉬라즈를 정의하는 와인’

BIN 150 마라낭가 쉬라즈

BIN 150 Marananga Shiraz

지역	호주 > 바로사 밸리 > 마라낭가		
포도품종	쉬라즈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Bin 150 Marananga Shiraz 2018은 짙고 깊은 붉은빛을 띠며, 첫 향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상시키는 스파이스 노트—커민과 말린 펜넬, 그리고 은은한 달 피클 뉘앙스가 섬세하게 피어오릅니다. 잘 익은 자두와 블랙베리가 중심을 이루며, 오크의 터치가 정교하게 어우러져 세련된 균형을 보여줍니다. 입 안에서는 보이즌베리와 멀베리의 농밀한 풍미가 콜라와 크림의 소다의 힌트와 어우러져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촉촉하고 정교한 탄닌은 라즈베리 씨앗을 떠올리게 하는 섬세한 질감을 더하며, 마무리에는 아이언스톤을 닮은 미묘한 미네랄리티가 길게 이어집니다. 구조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이 와인은 지금도 매혹적이지만, 앞으로 20년 이상 숙성하며 더욱 빛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 흰 육류 / 단단한 치즈 / 훈제/염장 음식 /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바로사 밸리 중심부와 매우 가까운, 북쪽과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서브리전 마라낭가의 고대 토양에서 탄생한 이 와인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와 풍부한 붉은 토양 덕분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들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과실의 공급 증가에 발맞춰 2008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이 스타일은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품질을 자랑하며, 중장기적인 셀러링에도 적합합니다. 아메리칸 오크와 프렌치오크에서 총 12개월 숙성하였습니다.

수상내역



2018빈티지 디칸터 Decanter 94점
2018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5점
2018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5점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았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 손꼽히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